

3 이 시를 읽고 느낀 점을 알맞게 말한 친구는 누구인가요? ()

- ① 지우: 달이 햇볕을 못 쬐어서 아픈가 봐.
- ② 현수: 달이 뽀족해서 찢리면 아플 것 같아.
- ③ 지수: 둥그런 보름달이 반쪽이 되었어. 불쌍해.
- ④ 동우: 달이 어떻게 저렇게 둥글둥글하지? 너무 궁금해.

4 이 시를 읽고 떠오르는 장면에 ○표 하세요.

(1)



()

(2)




()

(3)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엄마, ㉠내 짝한테는 고약한 냄새가 나는데 그 애 엄마한테도 그 냄새가 세상에서 가장 좋은 냄새일까요? 나는 그 냄새를 맡으면 머리가 아픈데…….”
엄마가 빙그레 웃더니 내 등을 토닥이며 말했어요.

“아이고, 우리 지안이가 ㉡짝꿍한테 나는 냄새 때문에 머리가 많이 아프구나! 엄마는 그것도 몰랐네. 엄마도 너만 했을 때 엄마 짝한테 나는 기름 냄새 때문에 머리 아픈 적이 있었단다.”

나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어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짝 바꿔 달라고 했어요?”

엄마는 잠깐 생각에 잠기더니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니……. ㉢그 친구네 집이 시장에서 참기름과 들기름, 콩기름을 파는 기름 가게를 했어. 그래서 옷에 기름 냄새가 배어 있었던 거지. 자기가 원하지 않지만 어떤 냄새가 배게 될 때도 있는 것 같아.”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여러분은 친한 친구에게 어렵거나 힘든 일이 생기면 도와주지요? 동물들도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서로 돕고 돕는답니다. 이런 동물들의 관계를 ‘*공생 관계’라고 해요. 그럼 어떤 동물들이 서로 도우면서 사는지 살펴볼까요?

개미는 단맛이 나는 진딧물의 배설물을 좋아해요. 진딧물을 맛있게 먹은 개미는 진딧물을 괴롭히는 무당벌레로부터 진딧물을 보호해 줘요.

바닷속에 사는 말미잘과 흰동가리도 좋은 친구 사이예요. 흰동가리는 말미잘에게 맛있는 물고기를 끌어다 줘요. 도움을 받은 말미잘은 흰동가리를 보호해 주며 빛을 갓지요. 이렇게 동물들도 서로서로 도우며 살아간답니다.

*공생: 서로 도우며 함께 삶.

9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낱말은 무엇인지 쓰세요.

10 이 글은 무엇에 대하여 쓴 글인가요? ()

- ① 개미와 무당벌레는 곤충이다.
- ② 말미잘과 흰동가리는 바닷속에 산다.
- ③ 친한 친구가 어려우면 도와주어야 한다.
- ④ 서로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동물이 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학교 수업이 끝난 뒤 많은 친구들이 학교 주변 문방구, 슈퍼에서 100원, 200원짜리 불량 식품을 사 먹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불량 식품은 품질이나 상태가 나쁜 식품입니다. 불량 식품에는 몸에 안 좋은 식품 첨가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너무 많은 양의 설탕과 알록달록 색소는 입에서는 달콤하지만, 몸에 나쁜 영향을 끼칩니다.

불량 식품을 간식으로 먹게 되면 밥맛이 떨어져 제때 식사를 하지 않게 됩니다. 식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영양소를 제때 섭취하지 않으면 성장하는데 방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량 식품을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11 이 글의 중심 낱말은 무엇인가요?

12 글쓴이의 주장은 무엇인가요? ()

- ① 아침을 반드시 먹자.
- ② 탄산음료를 먹지 말자.
- ③ 불량 식품을 먹지 말자.
- ④ 간식을 자주 먹지 말자.

13 글쓴이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두 가지 고르세요 ()

- ① 불량 식품은 가격이 비싸지 않다.
- ② 불량 식품을 먹으면 소화가 잘 되지 않는다.
- ③ 불량 식품은 몸에 안 좋은 식품 첨가물이 들어가 있다.
- ④ 불량 식품을 간식으로 먹게 되면 제때 식사를 하지 않게 된다.



다음 시를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산울림

윤동주

까치가 울어서
산울림,
아무도 못 들은
산울림.

까치가 들었다,
산울림,
저 혼자 들었다,
산울림.

14 무엇에 관한 시인지 쓰세요.

15 이 시에서 반복되는 말을 두 가지 고르세요. ()

- ① 혼자
- ② 까치가
- ③ 울어서
- ④ 산울림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어린 아이들이 다섯 손가락을 짝 펼쳐서 수를 세는 것처럼, 옛날 사람들도 손가락이나 몸을 이용해 수를 셧답니다. 하지만 양 30마리, 말 50마리처럼 숫자가 크거나 움직이는 동물을 셀 때는 중간에 수를 세다가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돌맹이, 조개껍데기, 열매 등을 이용하기 시작했어요. 양 1마리에 돌 1개씩 짝을 짓는 방법으로 수를 셧던 거죠. 이 방법으로 간단하게 동물이나 물건의 수를 셀 수 있었어요. 하지만 돌맹이나 열매는 작아서 다른 것들과 쉽게 섞이고, 조개껍데기는 쉽게 부스러지기 때문에 오랫동안 물건의 수를 표시하기는 힘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동물 뼈에 눈금을 새겨 수를 세기 시작했어요. 다음 그림처럼 말이 4마리가 있으면 동물 뼈에 4개의 눈금을 새겼죠. 이 방법으로 좀 더 오래 수를 기록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사람들은 수를 빠르고 정확하게 세고 오랫동안 기록하기 위해서 조금씩 방법을 바꾸어 나갔어요.



16 손가락으로 수를 셀 때 불편한 점은 무엇인가요? ()

- ① 쉽게 부스러진다.
- ② 큰 수를 세기 불편하다.
- ③ 작은 수를 세기 불편하다.
- ④ 다른 것들과 쉽게 섞인다.

19 이 글은 누가 누구에게 쓴 글인가요?

(1) 누가

()

(2) 누구에게

()

20 다음은 주혁이의 일주일 시간표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을 **보기** 에서 찾아 완성하세요.

보기 가족 여행 영어 학원 영화 감상 음악 줄넘기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동화책 읽기	음악 줄넘기	동화책 읽기	(1)	동화책 읽기	(2)	